

# 김경환의 China Weekly : 정부와 싸우면 안되는 구간



중국/신흥국 투자전략 김경환 (02-3771-7616) / RA 변운지 (02-3771-7593)

## 총평 : 중국증시, 마진을 압박 축소될 전방산업과 정책 순방향 업종 반등 전망

■ **금주 전망** : 중국증시는 인플레이션 관련 트레이드가 악화되고, 상품관련 시클리컬에 집중되었던 자금이 분산되면서 전체 시장은 Risk-On 강화를 예상. 추초 발표될 4월 생산, 투자, 소비지표가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면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 가능성이 높지만, 5월은 실적에 대한 관심이 줄면서 정부 정책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구체적으로 ①4월 통화량/대출/유동성 지표는 물론 정부채권 발행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현재 스탠스가 불균형의 해소(수출과 내수+후방과 전방산업)에 집중되고, 대외 여건의 악화가 아니라면 무리한 정책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②상품가격 안정 조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2분기 행정적 조치와 시장 개입을 통해 후방/전방산업의 이익 배분까지 조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③2분기 당국의 빅테크 포함 각 산업에 대한 '균기 잡기식' 관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핀테크, 유통, 교육, 스트리밍, 배송, 공유경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금주 중국에 대한 투자전략은 세가지이다.** ①정책과 순방향을 타는 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본토증시(제조업CAPEX/인구정책/환경/국유기업개혁)가 역방향을 타고 있는 홍콩증시(반독점법/민영기업/빅테크/경기소비) 대비 좀 더 우위, ②기존 시클리컬 업종의 경우 상품가격과 연결된 후방산업 보다는 1분기 마진 스쿼즈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전방산업(의류/가전/가구/기계/전력)과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음. ③또한, 정책 저항이 작고 선행지표가 돌아서고 있는 제조업 CAPEX 사이클 반등 관련 중국 반도체/장비/신재생 계속 주목.

■ **중국정부 개입과 상품가격 급락 관련 코멘트** : 12일 리처창 총리가 상품가격 급등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발언 이후 동시다발적인 조치들이 발표되면서 상품가격 3일 연속 급락(14일 야간 선물시장에서도 열일 4.8%, 철근과 연료탄 3% 급락). 14일 당산시 시장감독총국, 발개위, 공신부 철강기업 면담, 같은 날 상해시도 동일 부처가 철강기업을 면담하며 가격책정과 시세조정 및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또한 대련과 상해 상품거래소 역시 철근, 석탄, 구리 등 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상한 폭 조정을 발표. >시장 반응은 해당 지역 중심으로 매우 격렬.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산시 지역의 실제 거래 급감, 관망심리 심화(14일 하루 거래대금 전일 대비 43% 급감). 고점 매수했던 중소형 기업의 우려 매우 커졌다고 보도. 한편, 중국철강협회 통계 기준 5월 중순 일평균 생산량과 가동률도 전주 대비 상승하며 재고량 점차 증가. >코멘트 : 단기적으로 당국의 의지와 미팅 주관 부서의 권위, 구속력을 볼 때 선물과 현물시장 거래대금 급감과 관망심리가 점차 강화될 가능성.

**결국, 일부 투기세력과 레버리지 자금의 이탈로 4월 이후 상승분을 추가로 반납할 가능성 상존**(4월-5월 12일 철근 가격 15% 급등). 최근 전국적으로 가동률 상승과 생산 증가 신호가 발생한 점도 단기 가격에는 불리한 신호. 다만, 중국정부의 조치는 탄소중립과 공급제한이라는 (바꿀 수 없는) 최우선 목표를 유지한 채 후방산업의 폭리와 전방산업 생산차질 등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공급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2-3분기 고정투자(건설/인프라)와 전방산업의 계절적인 수요 증가 및 글로벌 운임 가격의 고공행진 등 환경도 당국 의지와 달리 추세적인 상품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의문. **중국증시의 해당 업종 역시 투자심리 급랭과 수급측면에서 정책 수혜 업종항 이탈로 지수 대비 언더퍼폼이 불가피하지만, 2분기까지 확보된 마진에 대한 기대로 추세 하락 가능성 역시 낮다고 판단.** 당국의 추가 조치, 글로벌 운임과 달러 방향 주목.

■ **미중 무역협상 재개 가능성 주목**: 전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최근 USTR 대표가 중국측 무역 담당자를 빠른 시일 안에 만나길 희망한다는 발언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태도로 답변. 또한, 최근 USTR 대표는 트럼프 정부 당시 고율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무역확장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 참고로 현재 중국의 대미국 수출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는 18.5%로 추정(관세전쟁 직전 2018년 상반기 평균 2-5%대) >코멘트 : **중국 외교부의 평소 스타일을 볼 때 양측이 접촉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추정.** 우리는 하반기 전망에서 양측이 물가상승 문제가 고율관세를 낮추거나, 최소 한시적으로 미루는데 적합한 명분이 될 수 있고, 예상보다 빨리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실제로, 중국 PPI의 모멘텀이라고 할수있는 MoM 상승률이 미국 PPI YoY 상승률을 약 3개월 선형. 중국 1-4월 MoM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미국 PPI는 여름까지는 상승 압력 상존. **만약, 양측의 관세 인하가 실제로 논의되어 2018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위안화 강세 요인, 하반기 중국과 한국 수출에는 Q효과가 크게 기대될 수 있다고 판단.** <그림 1-2번>

■ **4월 중국 경제지표 예상** : 월요일 오전에 발표되는 4월 생산/투자/소비는 PMI지수와 주간 단위 경제활동을 볼 때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할 가능성.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베이스 효과 축소로 인해 3월 대비 둔화되지만, 2년 평균 증가율은 모두 반등을 예상. 4월 산업생산(예상 YoY+10%/3월+14.1%)는 2년 평균 기준 3월 YoY+6.2%에서 4월 +7% 예상. 4월 소매판매(예상+25%/+34.2%)는 2년 평균 기준 3월 +6.3%

## 하나금융투자 글로벌리서치

에서 +6.8%로 반등 예상. 1-4월 고정투자(예상+19.8%/3월 +25.6%)는 2년 평균 기준 3월+2.7%에서 4월 3.4%로 역시 반등을 예상. 한편, 당사 추종 중국 8대 선행/동행지표는 4월 중 4개 상승/4개 하락으로 동행지표 턴어라운드 조짐<그림 9번>

- **업종 전략** : 정책 순방향, 수급이 '빈집', 1분기 마진을 압박이 개선될 업종 주목. **증권, 보험, 의류, 가구, 기계, 전력, 자동차, 항공우주**
- **A주 빠오투안50 3월 저점 이후 수익률 상위** : 통책의료, 산시편주, 양광전력, 아이얼안과, 장춘첨단, 약명강덕, 통웨이, 용기실리콘, CATL
- **금주 중국 중요 일정** : 중국 4월 생산/투자/소비/실업률 (17일), 중국 5월 LPR대출금리 고시(20일)

## 주간/주말 뉴스와 코멘트

### ★거시경제/정책/자본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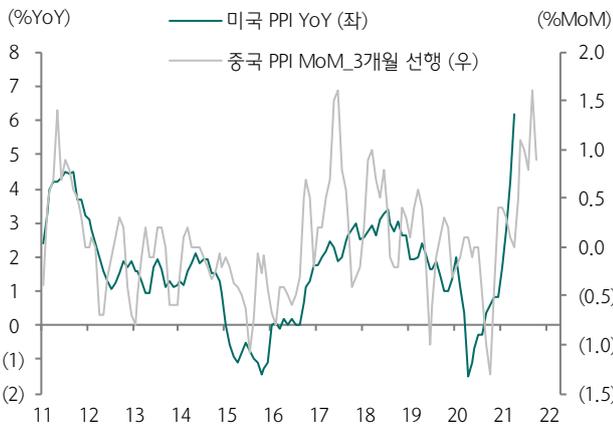
- 중국 코로나19 지역 감염자, 대만 지역 감염자 발생 : 방역 모범국이었던 대만에서 지역내 확진자 수 급격히 증가, 14일에는 180명 급증하며 일부 지역 경제 수위 크게 상향. 한편, 중국은 주말 안휘성과 요녕성 일부 지방도시에서 각 5명 이내의 본토 확진자 발생. 금주 확산세를 주목.
- **중난산,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 인구 70-80% 백신 접종 예정** : 중국 최고 호흡기 질병 권위자 중난산(鍾南山),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2~3년간 전 세계적인 협력 필요. 중국은 2021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전인 올해 말까지 인구의 70~80%에 백신 접종 예정.
- **6월 G7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태양광 기업 추가 제재 가능성 상승** : 존케리 기후 특사가 청문회에서 신장 인권 문제를 빌미로 중국 태양광 기업과 밸류체인에 대한 조사 착수를 언급. 실제로 중국 ADR 다초뉴에너지의 주가는 전주 약 12% 급락.
- **중국 합계출산율 1.5 이하 '저출산 함정' 우려** : 국무원, 중국 합계출산율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5 이하를 밑돌며 저출산 우려 확대. 중국 당국은 합계출산율이 1.5 이하가 지속하면 저출산의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며 지속해서 출생인구 변화를 모니터링할 예정.
- **4월 통화량/유동성/대출 급락에서 찾은 몇 가지 희망** : 4월 대출, 통화량, 사회용자총액은 신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시장 예상을 큰 폭 하회.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도 확인 (1)통화량 증가율은 이미 정부 목표(명목GDP성장률과 매칭)에 근접, 2분기 이후 추세 하락 가능성 낮다고 판단, (2)실물경제 회복의 신호인 중장기 대출 비중 고공행진, 가계와 기업 대출 증가율 3월과 유사한 확장 국면 <그림 3-8>
- **중국 ADR 회계 감리 이슈 업데이트** :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외국회사문책법'에 관한 세칙 공개. PCAOB의 평가 요소, 고려할 자료와 정보, 평가 기간 등 프로세스를 확립할 예정. PCAOB는 7월 12일까지 세칙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 '외국회사문책법'은 3년 연속 감사를 거부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뉴욕 거래소나 나스닥에서 퇴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안. 2020년 12월 '외국회사문책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 올해 3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외 기업 감사를 위한 초기 조치 검토를 시사한 바 있음. ▶**코멘트** : 기존 예상대로 2024년까지 요구대로 회계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중국기업은 거래정지에 처할 수 있음. 1차적으로는 미중 재협상의 가능성(투자자 보호와 기존에 중단된 회의의 연장선상), 2차적으로 민영기업의 자료 제출, 국영기업의 홍콩 이전 등 옵션 고려될 수 있음.
- **본토 강구통 자금, 홍콩 블루칩 저가매수 돌입** : 전주 강구통 누적 순매수 약 240억 HKD로 4월 이후 최고. 빅테크 중심으로 저가매수 돌입.
- **중국증시 신규 투자자 유입 추춤** : A주 시장 4월 신규 투자자 169만명으로 YoY+3.1%로 전월 대비 둔화. 누적 투자자수는 YoY+12.5%.
- **인민은행 1분기 통화정책 보고서 하이라이트** : 핵심문구 (1)통화정책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운용. 정상적인 통화정책 구간을 잘 활용해서 경기회복과 리스크관리 잘 조율 (•긴축에 내몰리지 않을 때 최대한 필요한 부양과 규제를 병행), (2)통화량과 사회용자총액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속도 매칭 (•정치국회의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 (3) 재대출 정책 등을 활용해 실물경제 직접 지원 고민인민은행 오퍼레이션은 양보다 정책금리(RP/MLF)를 더 중요하게 볼 필요. 글로벌 경제 회복의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아 보임. 또한, 주요국 초완화적 정책의 정상화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 (4)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높아질 듯. 베이스에 의한 전년비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인플레 기대를 높일 것으로 판단.
- **4월 중국 FDI YoY+38.6% 급증** : 1-4월 중국 FDI는 2019년 동기 대비 30.1% 증가. 서비스업+46.8%, 하이테크+29.1% 증가.
- **미국 2020년 대 중국 수출 YoY+18% 증가** :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2020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은 1,231억 달러로 YoY+18% 증가. 2020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은 '건강한 반등'이라고 표현하며 중국은 미국 상품 수출국 3위 유지.

### ★산업/기업/정책★

- **중국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0% 목표** : 발개위와 주민부 <14/5 차계획 도시 생활폐기물 분류 및 처리시설 발전계획> 발표. 2025년 말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60%를 달성하고,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수거량은 70만 톤까지 줄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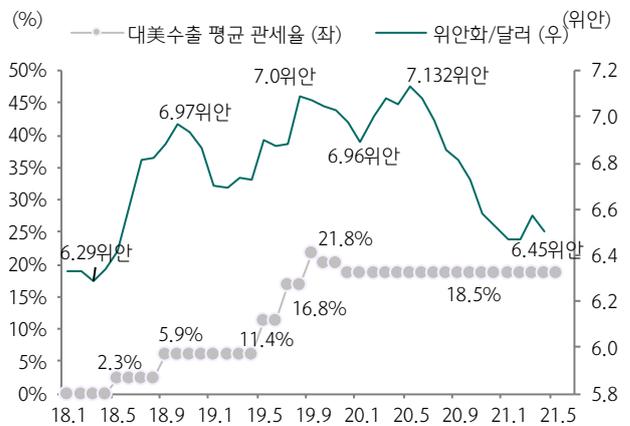
- **중국 전력, 철강, 비철, 전자재, 석유화학, 화학 등 업종 에너지 저감 추진** : 발개위, 1분기 에너지 소모량이 상승한 저장, 광동, 광시, 윈난, 칭하이, 닝샤, 신장 등 지역의 유관부서와 화상회의 진행. 탄소 저감을 위해 전력, 철강, 비철, 전자재, 석유화학, 화학 등 산업의 저감 촉구
- **중국 규제 당국, 디디추싱과 메이탄 등 운송관련 인터넷 기업 면담** : 자의적인 가격인상과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대우 조치 등 시정요구
- **샤오펑 3분기 반도체 재고 문제 해결 예상** : 샤오펑자동차 허샤오펑(何小鹏) CEO는 신규 공급업체와 협력해 반도체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3분기부터 재고 부족 문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 4월 택배업 지수 YoY+24.4% 증가세 유지** : 우정국, 2021년 4월 중국 택배 발전지수는 275.4로 YoY+24.4%. 그 중 발전규모지수(339.3)와 서비스품질지수(350.8)가 큰 폭 반등. 중국 택배 시장 양호한 발전 추세 유지.
- **중국 4월 자동차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 : 중국 자동차 생산 판매 증가세 지속, 신에너지차는 고성장 실현. 4월 자동차 생산(223만대, YoY+6.3%) 판매(225만대, YoY+8.6%), 신에너지차 생산(21만대, YoY+160%) 판매(20만대, YoY+180%)로 증가세 유지. (공신미보)
- **씨티그룹 홍콩, 2025년까지 WM 전문 인력 1,000명 신규 채용** : 씨티그룹은 2025년까지 WM 관리를 강화해 아시아 고객 자산 규모를 1,500억 달러 늘릴 예정. 올해 75명의 PB 매니저를 채용했으며 2025년까지 550명 신규 채용 예정. 현재 관리하는 아시아 고객 자산규모는 총 3,100억 달러. 홍콩 씨티그룹 우옌이(吳燕儀) 행장은 전통적인 소매금융 대신 신흥 기업의 자산 관리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함.
- **SMIC(981.HK), 1Q21 순이익 시장 예상치 65% 상회** : SMIC 1분기 매출액은 11.04억 달러(YoY +22%)로 시장 예상치를 3% 상회했으며, 순이익은 1.59억 달러(YoY -38%)로 시장 예상치를 65% 상회. 2분기 가이드선으로 매출 성장률은 YoY +17%~+19%, 마진율은 25%~27%로 제시. 생산 능력은 4Q20 기준 52만 장/월(8인치 기준)에서 1Q21 기준 54만 장/월(8인치 기준)로 확대되었으며,가동률은 98.7% 달성.
- **화홍반도체(01347.HK), 1분기 최대 실적 경신** : 화홍반도체 1분기 매출액은 3.05억 달러(YoY +50%, QoQ +9%), 순이익 3,310만 달러(YoY +63%, QoQ -24%) 기록.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NOR flash, MCU, IGBT와 CIS 상품 수요가 견인한 것으로 판단. 마진율은 23.7%이며, 전년동기 대비 2.6%p 상승. 다만 준절 연휴 기간 내 임직원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으로 전분기 대비 2.1%p 하락.

그림 1. 중국 PPI MoM 상승률이 미국 PPI를 약 3개월 선행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2. 현대 중국의 대미국 수출 평균 관세율은 약 18.5%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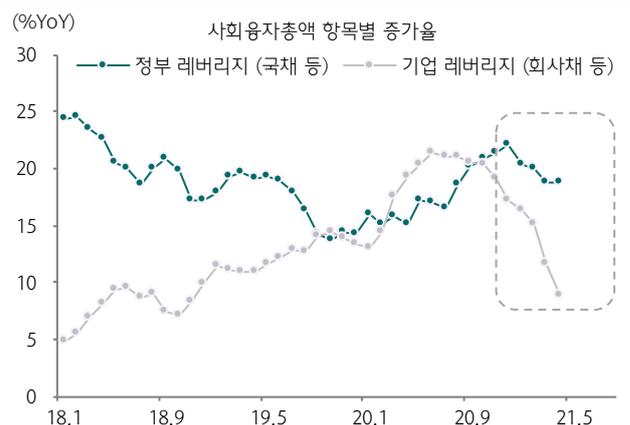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3. 4월 사회용자총액과 통화량 증가율 큰 폭 둔화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4. 채권발행도 정부발행 축소와 기업 채권 만기 급증으로 역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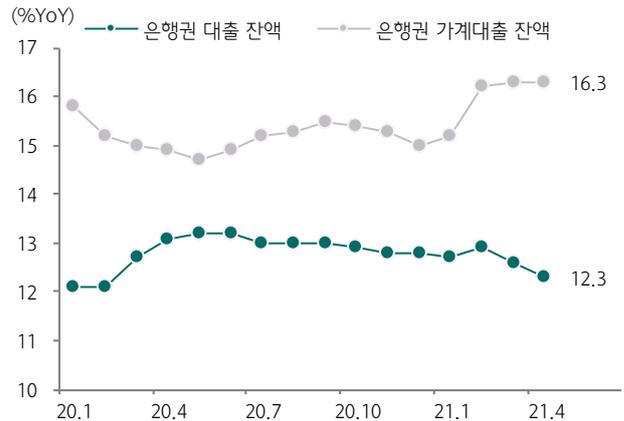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5. 사회용자총액 VS 은행 대출 증가율 : 간극은 그림자금융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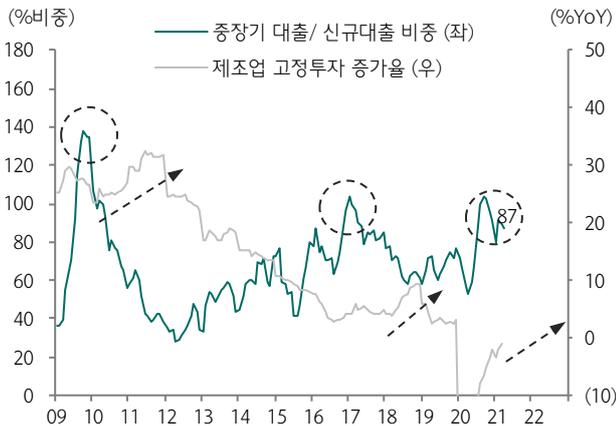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6. 은행권 대출 : 가계대출 증가율 고공행진 지속, 자금수요 양호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7. 기업 중장기 대출 비중 고공행진, 시차를 두고 기업투자에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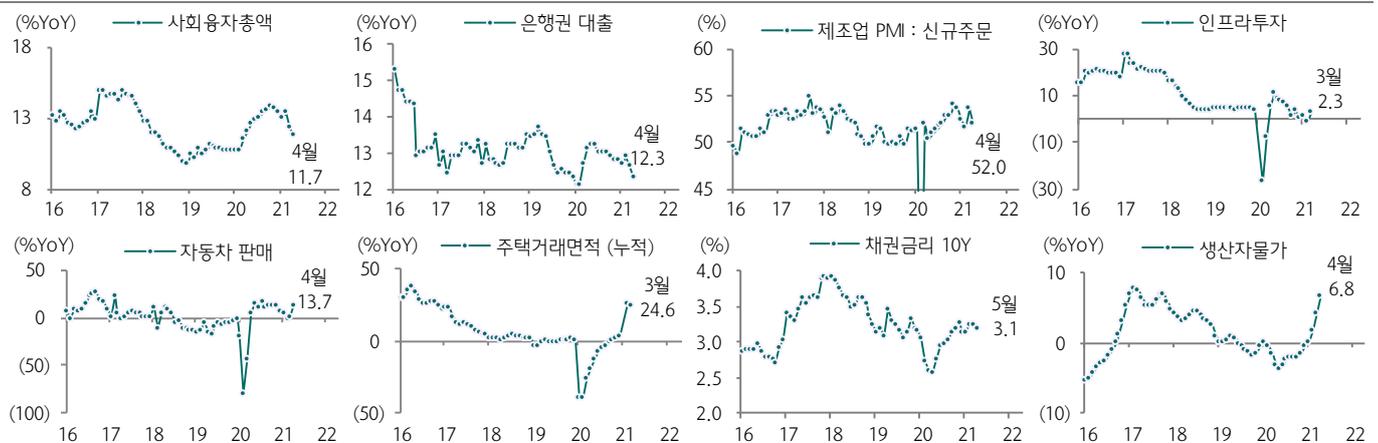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8. 4월 중순 이후 정부 발행 특수채와 지방채 규모 빠르게 증가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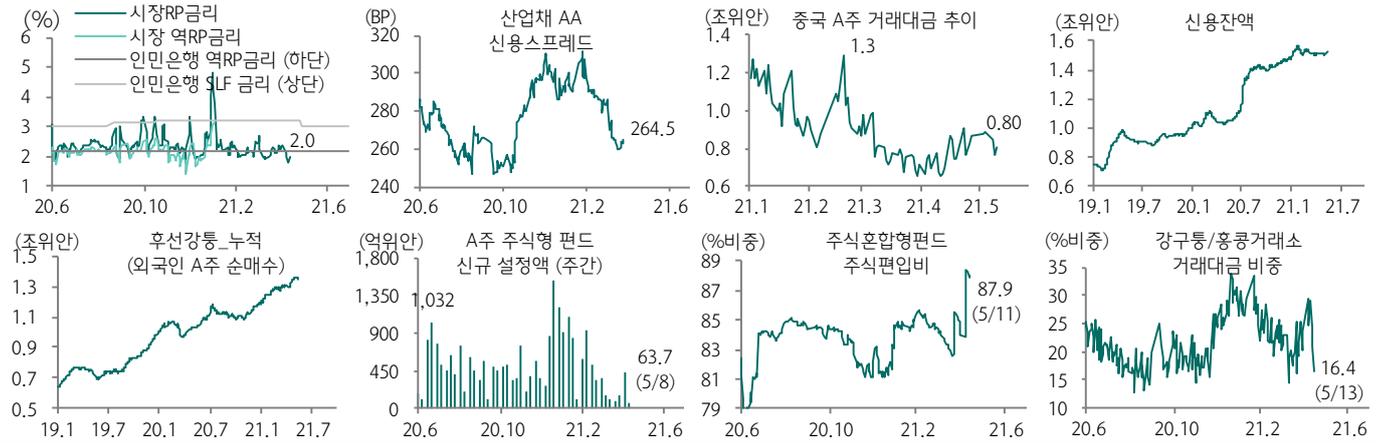
그림 9. 3-4월 중국 8대 선행/동행지표 추이 : 8개 지표 중 4개 상승, 4개 하락. 유동성/대출/신규주문/금리 하락 vs 인프라/주택거래/자동차/물가 상승



주 : 자동차 판매와 주택거래면적(누적)은 2019년 대비 증가율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10. 중국중시 정책/유동성/수급/투자심리 모니터링 : 콜금리 양호, 신용 스프레드 상승. 거래대금과 신규 펀드 발행 재아락. 펀드 주식편입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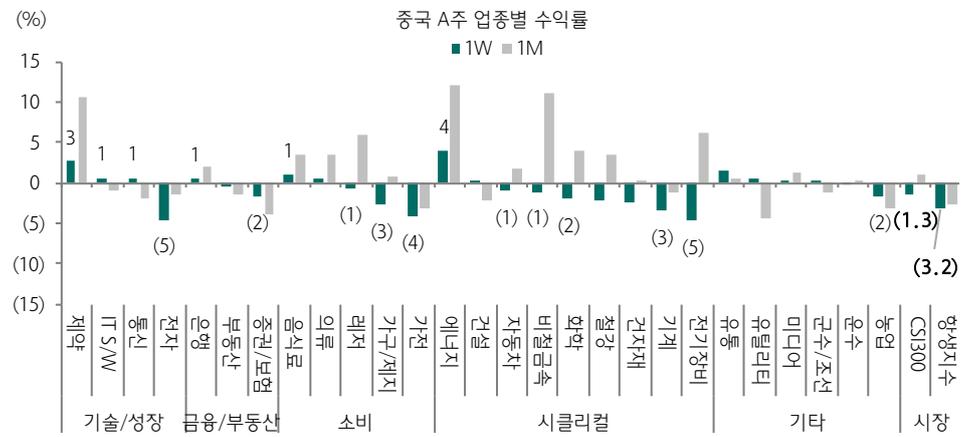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11. 중국 A주 주요 업종 주간 수익률 : 에너지 제외 시클리컬 전반 약세, IT 밸류체인 약세. 방어주 선방.

주간 CSI300지수 1.3% 하락. 업종은 에너지, 제약, S/W, 통신, 은행, 음식료 아웃퍼폼

전기장비, 전자, 가전, 기계, 가구, 레저 언더퍼폼



주 : 2021년 5월 13일 종가 기준, 업종은 A주 선원(申万)분류 기준, 자료 : Wind, 하나금융투자

그림 12. A주 빠오투안 50종목 3월 24일 저점 이후 회복률 상위 : 통채의료, 산시편주, 양광전력, 아이얼안과, 장춘첨단, 약명강덕, 통웨이, 용기실리콘, CAT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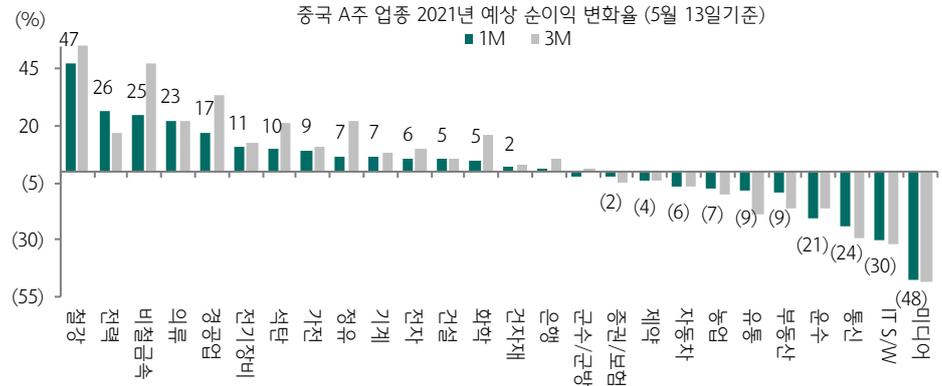
종목명	업종	종목코드	PER (2021E)	2차 저점 (3/24) 이후 상승률	연내 고점대비 하락률	종목명	업종	종목코드	PER (2021E)	2차 저점 (3/24) 이후 상승률	연내 고점대비 하락률
통채의료	헬스케어	600763.SH	137.2	51.5	(10.8)	우량예	음식료	000858.SZ	42.0	5.8	(19.9)
산시편주	음식료	600809.SH	77.5	33.7	(6.8)	하이드그룹	식품	002311.SZ	39.0	5.1	(7.5)
양광전력	전기장비	300274.SZ	41.4	26.2	(32.9)	중항광전	전자	002179.SZ	36.1	3.2	(20.6)
이브에너지	전기장비	300014.SZ	53.1	26.1	(22.7)	BOE	전자	000725.SZ	12.2	2.6	(12.9)
아이얼안과	헬스케어	300015.SZ	121.5	25.6	(17.7)	초상은행	은행	600036.SH	12.3	1.9	(4.5)
장춘첨단	제약	000661.SZ	46.7	24.9	(2.8)	상해종합	지수	000001.SH	12.5	1.9	(7.2)
약명강덕	제약	603259.SH	89.3	24.9	(16.8)	입신정밀	전자	002475.SZ	26.2	1.7	(46.9)
통웨이	태양광	600438.SH	30.1	24.8	(30.5)	항생전자	S/W	600570.SH	58.9	1.6	(23.3)
용기실리콘	태양광	601012.SH	32.6	23.1	(23.2)	CSI300	지수	000300.SH	12.3	1.3	(14.0)
CATL	전기장비	300750.SZ	88.1	21.6	(15.0)	홍업은행	은행	601166.SH	6.2	0.1	(18.6)
매서의료	제약	300760.SZ	64.0	20.4	(8.5)	중국중면	레이저	601888.SH	50.1	(0.0)	(23.9)
화유코발트	소재	603799.SH	41.9	19.9	(32.3)	이리	음식료	600887.SH	26.4	(0.8)	(25.0)
자금광업	소재	601899.SH	25.8	18.4	(24.3)	마오타이	음식료	600519.SH	43.7	(0.9)	(24.2)
지비바이오	제약	300122.SZ	66.0	18.1	(7.4)	포커스미디어	미디어	002027.SZ	24.9	(1.4)	(23.4)
양하양조	음식료	002304.SZ	34.1	17.8	(29.5)	회천기술	기계	300124.SZ	48.3	(1.5)	(30.5)
하이크비전	전자	002415.SZ	35.0	17.3	(13.0)	만화화학	화학	600309.SH	17.0	(1.6)	(30.7)
창신신소재	소재	002812.SZ	58.8	17.2	(23.8)	하이얼스마트홈	가전	600690.SH	23.8	(2.4)	(19.3)
해피고홀쇼핑	엔터테인먼트	300413.SZ	48.2	15.6	(28.9)	항서제약	제약	600276.SH	54.9	(5.5)	(28.9)
노주노교	음식료	000568.SZ	44.0	13.1	(22.6)	거리전자	가전	000651.SZ	14.3	(6.5)	(12.1)
동방재부	증권	300059.SZ	40.3	12.7	(23.1)	메이디	가전	000333.SZ	18.5	(8.0)	(29.8)
평안은행	은행	000001.SZ	13.9	12.4	(7.5)	BYD	자동차	002594.SZ	77.4	(8.4)	(44.3)
강봉리튬	소재	002460.SZ	77.4	12.0	(27.7)	중국평안	보험	601318.SH	8.1	(12.5)	(21.3)
금산반공	S/W	688111.SH	133.4	11.6	(30.5)	완커A	부동산	000002.SZ	7.0	(12.6)	(19.8)
닝보은행	은행	002142.SZ	14.5	9.3	(3.1)	태평양보험	보험	601601.SH	11.0	(13.5)	(30.1)
월반도체	반도체	603501.SH	54.9	7.8	(17.9)	삼일중공업	기계	600031.SH	13.0	(18.7)	(42.3)
광련달	S/W	002410.SZ	123.2	5.9	(29.5)	순펑홀딩스	물류	002352.SZ	43.9	(23.2)	(46.1)

주 : 2021년 5월 13일 기준, 고점은 연내고점, 저점은 '빠오투안' 2차 저점인 3월 24일 기준, 자료 : Wind, 하나금융투자

중국 A주와 MSCI China 주요 업종 이익/매출 추정치 변화 (주간)

2021년 순이익 전망치 상향은 철강/전력/비철금속/의류/경공업/전기장비/석탄/가전/정유/기계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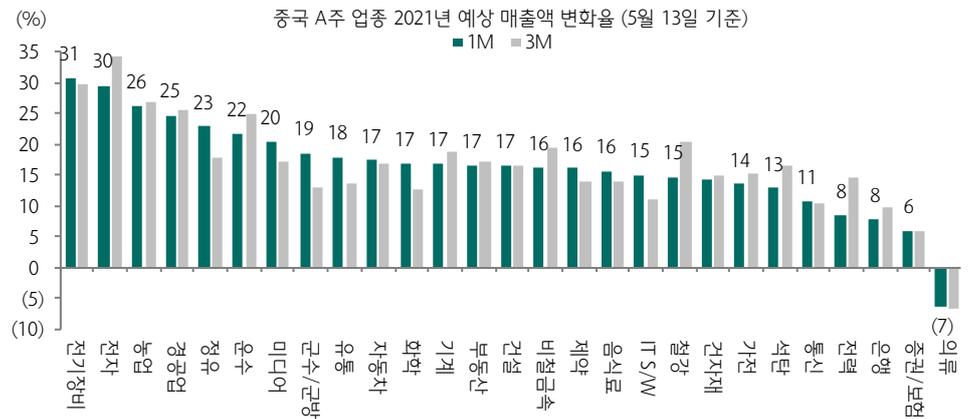
그림 13. 중국 A주 2021년 예상 순이익 변동 : 1분기 실적 발표 후 소재, 산업재 상향 vs 미디어, SW 하향



주 : 업종은 A주 중신(中信) 기준. 자료 : Wind, 하나금융투자

2021년 매출 전망치 상향은 전기장비/전자/농업/경공업/정유/운수/미디어/군수/유통 순

그림 14. 중국 A주 2021년 예상 매출액 변동 : 1분기 실적 발표 후 전기장비, 전자, 농업, 운수, 미디어 상향



주 : 업종은 A주 중신(中信) 기준. 자료 : Wind,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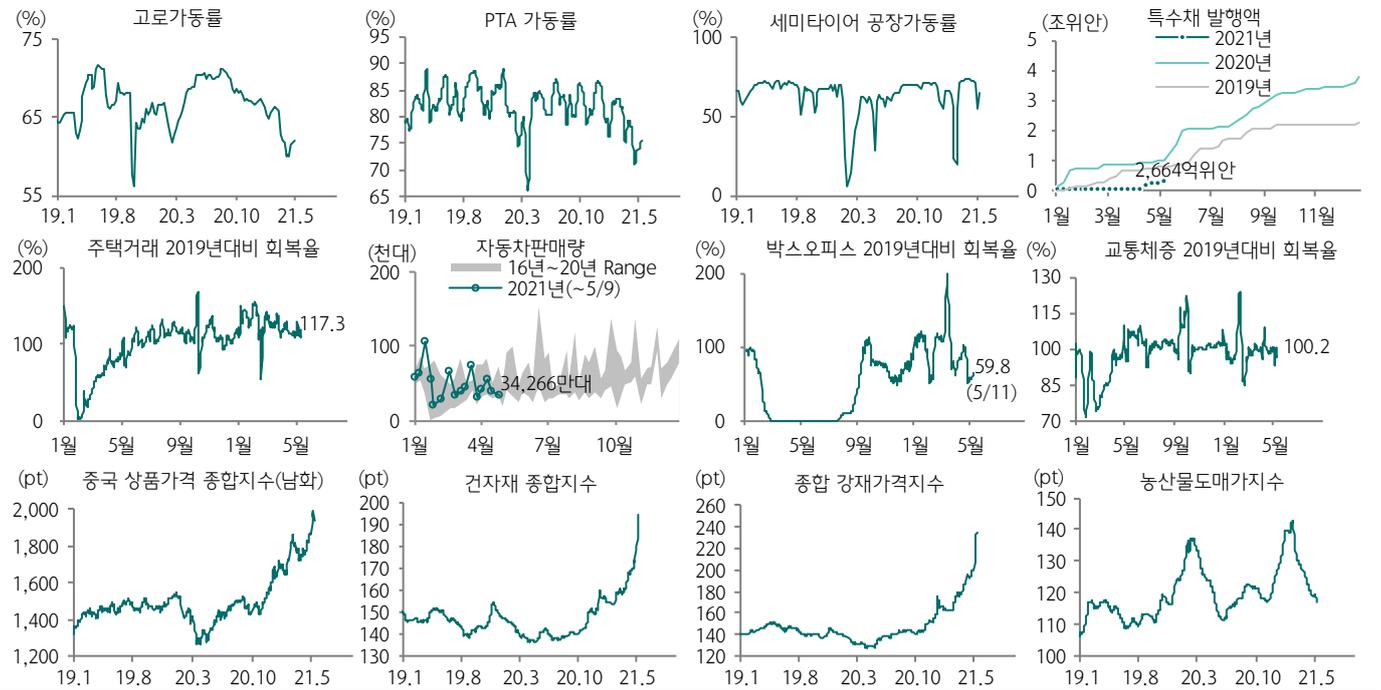
그림 15. MSCI China 업종별 EPS 변동 (12개월 선행EPS의 YoY 변동률) : 금주 헬스케어(+3.1%p), 건설&기계(+2.7%p), 자동차(+2.6%p), 음식료(+2.1%p), 소프트웨어(+2.0%p)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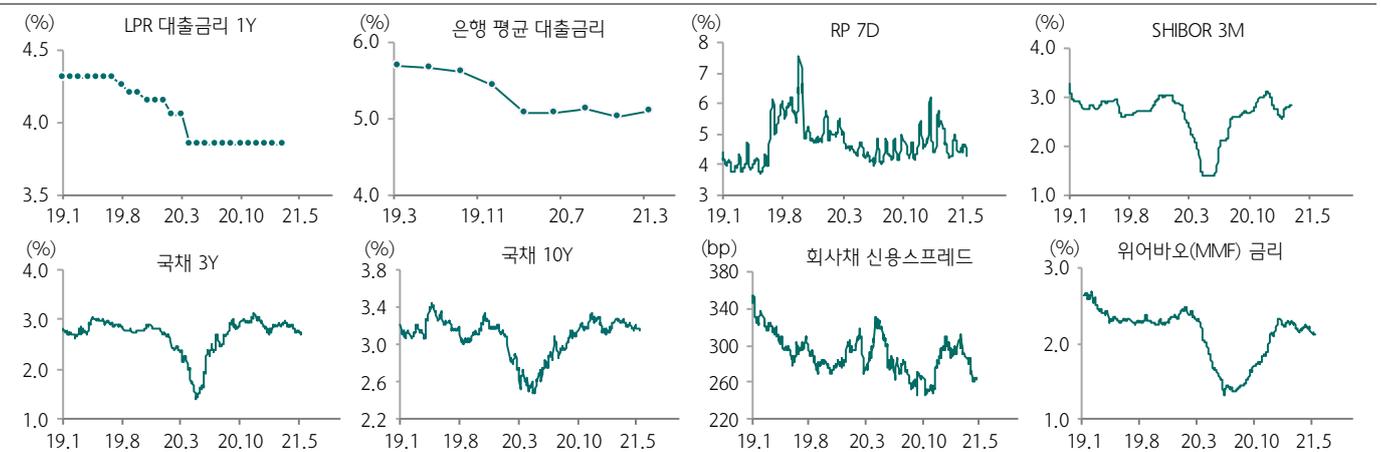
중국 경제활동 Proxy (주간), 8대 정책/시장 금리 (일간)

그림 16. 중국 주간 경제활동 Proxy : 가격상승에 따라 철강과 화학 가동률 3주 연속 상승, 자동차 생산도 4월 하락 이후 반등. 서비스/소비는 자동차 판매 추세 하회, 주택거래는 안만한 하락이나 추세 상회 기조, 박스오피스와 외부활동은 연휴 직후 하락. 상품가격종합지수는 당국 개입과 대출 부진에 따라 연초 이후 사실상 첫 하락, 농산물 가격도 재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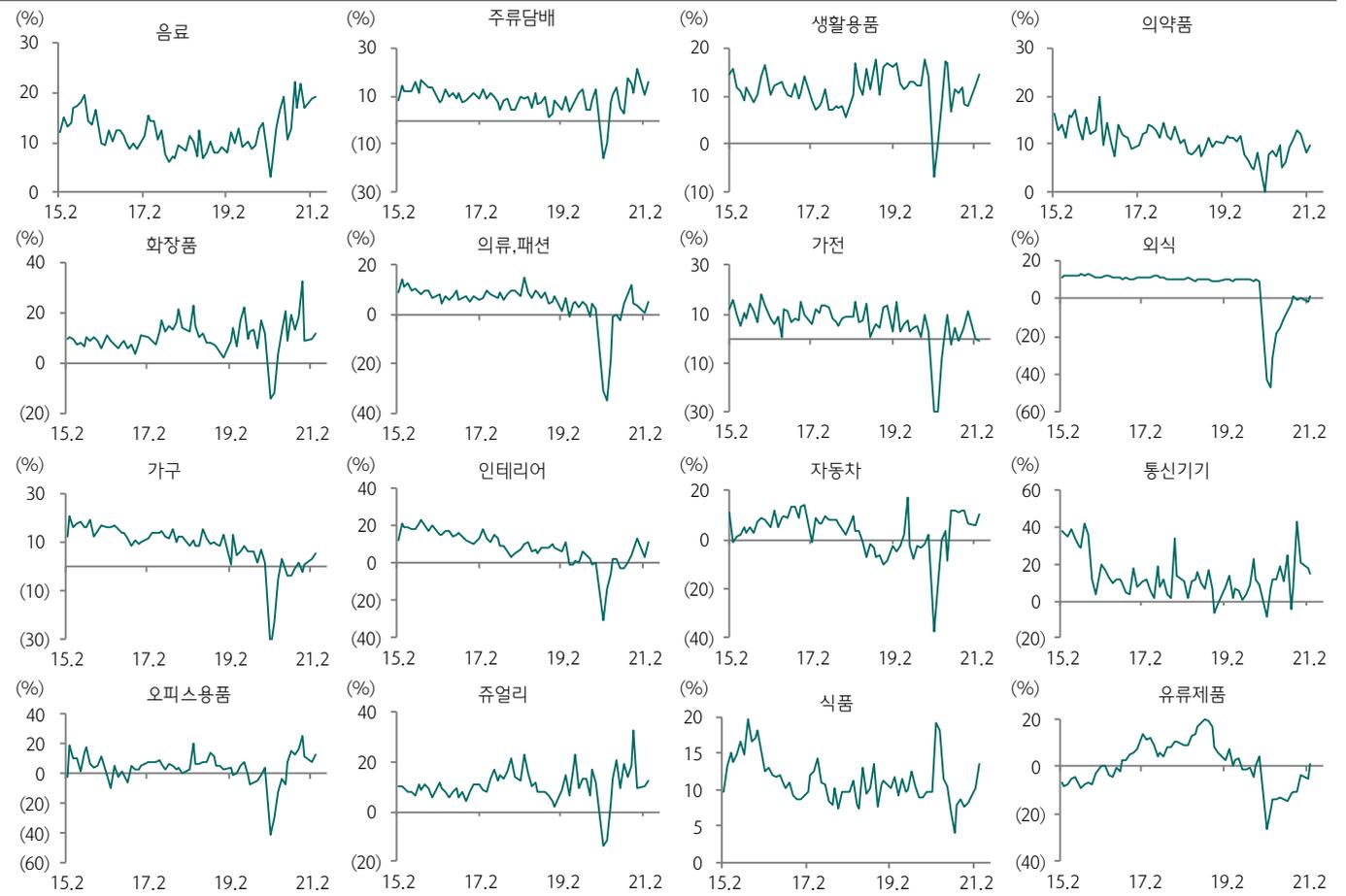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17. 중국 8대 금리 추이 대체로 안정적 : 정책금리는 횡보, 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소폭 상승. 콜금리와 국채금리도 하향안정. 신용스프레드 소폭 상승.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그림 18. 중국 대형 소매기업 업종/품목별 매출증가율 추이(1분기는 2년 평균 증가율 기준) : 음식료/생활용품/화장품/인테리어/가구/자동차 고공행진



자료: Wind, CEIC, 하나금융투자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경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05월 1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경환)는 2021년 05월 16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 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 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